



〈최후의 만찬과 발씻김〉, 6세기, 채색삽화, 로사노 코덱스

### 성화 해설

성서를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이 작품에는 최후 만찬과 세족례의 모습이 함께 등장한다. 왼쪽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비스듬히 누운 채로 최후 만찬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과 세족례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크신 사랑과 지극한 봉사를 모범으로 보여 주셨다.

### 입당송 시편 81(80), 17 참조

내 백성에게 나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을 실컷 먹이리라.

### 제1독서 탈출 24,3-8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 화답송 시편 116(115), 12-13, 15와 16ㄷㄹ, 17-18(◎13)

####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당신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데.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이오니,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당신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

### 제2독서 히브 9, 11-15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 부속가(성체송가)

천사의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복음환호송 요한 6, 51ㄱ-ㄴ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복음 마르 14, 12-16, 22-26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 영성체송 요한 6, 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 “...내 방이 어디 있느냐?”

구요비 읍신부 | 프라도회 한국책임



이 주 경건하고 독실한 개신교 형제들 중에 가톨릭의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여하였다가 ‘신자 아닌 분들은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말을 들으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한 개신교 신학자께서는 ‘성체 성사는 칼과 총탄보다도 강합니다’ 라고 하였다.

미사 예식 중에 집전자인 사제만이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들이 있다. 예물준비 때에 사제는 포도주에 물을 한 방울 섞으며 ‘이 물과 술의 신비로 우리도 우리의 비천한 인성(人性)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참여케 하소서!’ 하고 속으로 기원한다. 사실 내게는 이 순간이 미사 중에 가장 행복한 때이다! 하찮은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를 이룬다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우리 인간성(人性)이 하느님의 신성(神性)으로 변용(變容)될 수 있다는 희망뿐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자체의 진보와 변모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

신토불이(身土不異)가 말해주듯 어찌면 인간의 몸과 정신도 그가 태어난 땅의 소출을 섭생할 때에 최상에 이를 수 있다. 이렇듯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나날이 성장해 간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천사의 양식(Panis Angelicus), 신령한 음식이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말하자면 일종의 ‘핵분열’ 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원리가 창조안에 도입된다. 이 변화는 온 존재의 핵심에 파고들어 실재를 변화시키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까지(1코린 15,28)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한다(사랑의 성사 p.32).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영성체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수동성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 19)’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행위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신께서 참으로 원

하시는 봉헌물은 이 세상의 성장, 우주 만물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성장뿐이다(뎀이야르드 샤르맹).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익명의 사람이 제공하는 큰 이층 방에서 거행되었다고 전한다(15절). 예수님은 이 집주인에게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14절)’ 하고 물으신다. 이 부유한 주인은 가까이 자신의 제일 큰 방을 내어 드린다. 이 주인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22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상통한다. 예수님의 자기중여,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심을 닮고 있다. 이 자기중여의 텅 빈 공간안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 하늘과 새 땅’ 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 3,20).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마르 14,22).

# 편하게 삽시다



이상용 헨리코 | 방송인

저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배울 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항상 배울 것이 많지요. 가끔 애들한테도 배울 게 많답니다. 요즘 유괴범이 “아가, 천 원 줄게 따라오렴!” 하면 아이는 “아저씨, 내가 만 원 줄게 파출소가실래요?” 한답니다. 타산지석이라 했나요? 잘 살펴보면 도둑님(?)한테도 배울 게 있답니다. ①밤새워 일한다. 남 잘 때도 일한다. ②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③절대 동업하지 않고 혼자 한다. ④불황을 타지 않고 IMF도 상관없다. ⑤자기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 ⑥명퇴나 정년이 없다. ⑦잘못해도 큰집에 가서 밥 세끼 꼬박꼬박 먹는다. ⑧취직시험도 없이 100% 취업이 된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렇다고 다 도둑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지요.

어느 날 제가 교도소 위문을 갔다가 한 죄수에게 물었어요. “넌 어떻게 3년이 다 되도록 면회 오는 식구가 하나도 없냐?” “올 수 없어요!” “왜? 다 외국에 있냐?” “아니요. 모든 식구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서요.” 들어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 참례엔 핑계가 있어선 안 되지요. 마지못해서, 마누라가 뭐라고 해서 등 이유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일날 성당에 오는 건 축제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성당은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 볼 수 있는 영혼

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아버지의 뜻대로 끈끈하게 살도록 합시다. 첫째는 화끈하게, 둘째는 구두끈을 질끈 동여매고, 셋째는 심장을 후끈하게 달궈서, 넷째는 작은 일에 절대 발끈하지 마세요. 어때요? 끈끈하게 사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작지만 셋덩어리 같다고 해요. 여러분도 쇠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아내 명령에 복종하는 들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마당쇠, 아내의 잘못에 참는 자물쇠, 화난 아내의 마음을 다스리는 만능열쇠, 경제위기에 끄떡없는 무쇠, 짜증나는 세상 등글등글 사는 굴렁쇠, 근검절약하는 구두쇠... 자, 여러분은 어떤 쇠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편하게 삽시다.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걸고 받을 줄만 알면 편합니다. 내 친구 부인이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을 한 시간 동안 배웠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흐뭇했지요. 그런데 그걸 받아본 남편이 택시를 타고 달려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에서 ㄹ을 ㄱ으로 잘못 쳐서 “여보, 사망해”로 문자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삽시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사실은 총이고 행복이지요. 편안하지 못한 것은 과도한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도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4

## 피임은 낙태를 막는 처방이 될 수 없다

“가톨릭교회가, 피임이 도덕적으로 불법이라고 고지식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반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임 사고방식’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가치들은, 바라지 않은 생명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는 [낙태의] 그 유혹을 강화시키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피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곳에서 낙태 조장 문화가 특히 위세를 떨칩니다” <생명의 복음 13항>.

많은 이들이 미혼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피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임은 생명의 전달이라는 성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며,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은 보통 낙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는 피임법이 아니라 성의 인격적 의미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결과 혼인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결실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과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부부 관계의 충만함이 보존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지구촌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공동의 양심

- 우리 모두가 지구시민성 가지고 변화하여야 할 때 -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 만난 적도 없는 가난하고 힘없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 세상을 살다 이해하기 어려운 죄목으로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그의 나이 서른 셋이었다.

다시 성체성혈 대축일이다. 뜨거운 피를 흘리며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내던진 십자가 위의 저 젊은이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묵상하여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야 할까?

이제껏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물질과 문명의 이로움에 한껏 도취됐었는지 몰라도 이제 서서히 그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다. 역설적이게도 그 경고음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는 뉴욕으로부터 전 세계로 날아들었다. 절대 무엇으로도 위협할 수 없을 것 같던 거대한 금융기업들이 쓰러지고 시장과 화폐는 요동을 친다. 양의 성장만을 바라보며 전력질주를 하던 사람들은 충격 속에 멈춰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장이란, 발전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 세계 각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다 7%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우리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매년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숫자만도 2만 명. 우리는 이 전례 없는 풍요의 21세기를 살면서도 아사하는 저 무고한 어린이들조차도 살려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절대빈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민들은 유럽의 소들이 받는 정부의 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는다. 지구 인구의 6분의 1이 여전히 존엄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배고픔으로, 치료 가능한 우습기까지한 질병으로, 전쟁과 분쟁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는 PBC평화방송 평화신문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생명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지구촌 빈곤과 생명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이날 축사에서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빈곤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주의와 관심이 항상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 빈곤문제의 해결은 좀 더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우리는 밀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연계되어 있다. 멕시코의 한 여성이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 며칠 내로 우리도 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한 국가, 한 지역, 한 사람의 문제는 결코 우리와 또 나와 무관하지 않다. 빈곤과 억압, 부정의로 고통받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그누군가도 나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지구촌의 생명의 위기 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시급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단순히 지구의 가난한 이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식에 대한 성찰과 실천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질만능주의, 고도성장, 개발론적 사고를 탈피하고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호혜적인 상생의 관계, 에너지와 소비를 줄이고 환경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깨닫고 실천할 때라만 우리가 축적한 물질의 풍요로움도 특정한 소수가 아닌 인류를 위해 공정하고 이롭게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오늘 또다시, 우리 모든 인간과 세상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은 성체성혈의 정신은 움켜쥔 손을 펴지 못하는 우리에게 양손을 비우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은정 도미니카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개발원조팀장

소식

오늘(6월14일)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6월21일(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기도의 날'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민족화해위원회 별지 참조)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및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10주년 기념 미사

- 때, 곳: 6월18일(금) 오전 11시~오후 5시, 통일부 하나원
- 문의: 499-2781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바로로의 해' 폐막 기념 '도보 성지순례'

- 대상: 참가 신청한 각 본당 대표 5명(개인접수는 안 됨)
- 때, 곳: 6월27일(토) 오전 9시~12시, 절두산 순교성지 ~새남터성당 간 약 6.5km(약 1시간30분~2시간 소요)
- 준비물: 목주, 미사도구, 개인 상비약(회비 없음)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제15회 사제 성화의 날 행사 및 '사제의 해' 개막미사

6월19일(금)은 제15회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금년 서울대교구 사제 성화의 날 행사는 아래와 같이 지역 별로 준비하고 개최합니다. 또한 '사제의 해'가 시작 되는 이 날에 '사제의 해' 개막미사를 봉헌합니다.

|                |   |
|----------------|---|
| 중서울지역<br>그외 직능 | 때, 곳: 11시20분~16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br>대상: 1~4지구, 6~7지구, 교구청과 모든 직능                               |
| 동서울지역<br>사회사목부 | 때, 곳: 11시30분~17시, 광장동성당<br>대상: 5지구, 8~11지구, 사회사목부   |
| 서서울지역          | 때, 곳: 10시~16시30분, 대방동성당<br>대상: 12~15지구  |
| 학교법인           | 때, 곳: 10시~15시, 서초평화빌딩<br>대상: 학교법인, 3개 교정(성심, 정의, 성심), 동성중고등학교, 교리신학원, 사제평생교육원, CMC(직할병원 포함) |

제9회 가톨릭 포럼 '멀티미디어와 인간'

- 때, 곳: 6월17일(수) 오후 2시~5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문의: 011-244-9137, 3701-1394
- 주최: 서울대교구 매스컴위원회,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6월15일 윤형중 마태오 신부(76세) 1979년, 용산
- 6월21일 서우석 세자요한 신부(44세) 1978년, 용산

6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사도 바로로

|          | 오전 10시30분   | 오후 2시                |
|----------|-------------|----------------------|
| 6월16일(화) | 신도림동성당      | 연희동성당                |
| 6월17일(수) |             | 흑석동성당<br>봉천동성당(지구자체) |
| 6월18일(목) | 방배동성당(지구자체) | 혜화동성당                |
| 6월19일(금) | 창동성당        | 오금동성당(2시30분)         |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직원 모집

- 대상: 만 25세 이상 4년제 대졸자, 중고등부 주일 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 6월24일까지 접수
- 문의: 763-7967 / 홈페이지(www.foryouth.or.kr) 참조

서울대교구 동작동성당 사무장 모집

- 대상: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에 익숙한 남녀 / 문의: 595-6961(6월30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제출 서류는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 통보함)

평화화랑 제1, 2전시실: 윤혜진 회화전

- 평화화랑은 '윤혜진(세실리아, 정릉4동성당) 회화전'을 6월17일(수)~23일(화)에 제1, 2전시실에서 전시합니다.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 평화화랑

교구청 알림

가톨릭 유아교육 담당교사들을 위한 생태월례강좌3

- 대상: 가톨릭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 담당교사 및 관심자 50여 명 / 내용: 유아교육놀이(회비: 1만원)
- 강사: 황경선 선생(유아교육놀이연구소 소장)
- 때, 곳: 6월20일(토) 오전 10시~12시, 명동성당 교육관 305호
- 문의: 727-2283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 6. 21. 14시-17시   | 사당동 본원       | 010-2704-6186 |
| 돈보스코 여자재속회(VDB)   | 6. 21. 10시-17시   | 살레시오 3층(신길동) | 011-797-3115  |
| 마리아 수도회(남자)       | 6. 21. 14시       | 서울본원및각지역본원   | 010-3773-4044 |
| 마리아의딸수도회(마리아니스트)  | 6. 20. 17시-19시   | 목동 본원        | 011-686-7134  |
| 마리아의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 6. 21. 14시       | 가리봉 수녀원      | 016-570-0939  |
| 살레시오 수도회          | 6. 27-28. (1박2일) | 대림동 공동체(서울)  | 011-894-1332  |
| 삼성산 성령 수녀회        | 6. 21. 14시-17시   | 수녀원 본원       | 010-2738-0039 |
|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 6. 21. 14시-17시   | 돈암동 본원       | 010-7101-9302 |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 사랑의딸회 | 6. 21. 14시     | 군포 수녀원    | 010-6625-0927 |
| 세례자 성 요한 수녀회      | 6. 21. 15시     | 수녀회 수원 본원 | 010-2432-4230 |
| 순교자의 모후 전교 수녀회    | 6. 21. 14시     | 갑곶성지 수녀원  | 010-2954-1685 |
|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 6. 21. 14시     | 미아리 본원    | 016-9876-0418 |
| 예수수도회             | 6. 21. 14시     | 홍지동 수녀원   | 011-9910-1198 |
|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 6. 21. 13시-14시 | 음성 꽃동네    | 011-806-6879  |
| 위로의 성모 수녀회        | 6. 21. 14시     | 성북동 본원    | 010-2210-3660 |
|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 6. 21. 14시     | 계산 서원     | 010-9407-6219 |

알림

모임

마리아의 종 수녀회 수녀원 체험

· 대상: 젊은 미혼 여성 / 031)227-8221, 010-3065-8221
· 때, 곳: 6월26일(금)-28일(일), 수원 본원

향기모임

· 대상: 고요속에 기도하고픈 미혼 여성
· 때, 곳: 6월17일(수) 19시30분-21시30분, 씨튼 피정의 집 / 011-9193-3005 사랑의 씨튼수녀회(주최)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문의: 016-309-0048)

·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홍택훈)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모임

· 때, 곳: 6월20일(토) 오후 6시45분, 작은 형제회 수도원 성당(정동) / 주최: 청소년의 햇살
· 문의: 744-0840(www.taizelove.or.kr)

묵상 관심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6월21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삼성산 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 때: 6월15일(월), 22일(월) 오전 9시30분-17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성령 대피정

· 강:의·미사: 오수영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과 수도회 설립) / 중식비: 3천원(회비없음)
· 때: 6월18일(목) 9시30분-17시 / 문의: 451-0333
· 곳: 개포동 12-5 하상복지관 내 지하성전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
· 강사: 사제, 수도자, 평신도 / www.crks.or.kr
· 때, 곳: 매주(금) 22시-4시30분, 동성고등학교(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예수살이 공동체 산위의 마을 청년 휴피정

· 노동과 명상으로 자신의 생을 컨설팅 함(회비: 7만원)
· 대상: 미혼청년 대학생 / 지도: 박기호 신부
· 곳: 충북단양 / 043)421-2144(www.sanimai.org)

Table with 3 columns: 2차: 6월30일(화) 7월5일(일) 5월6일 3차: 7월21일(화) 20일(일)
오전: 발농사, 오후: 강의, 명상, 저녁: 묵상나눔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외적 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치유, 상담, 강의, 미사(회비없음, 중식제공)
·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Table with 2 columns: 6월17일(수) 치유기도회와 안수/박성구 신부
6월24일(수) 예수님 제자들의 치유/전체덕 회장

복음화학교 1단계 93기 피정·94기 개강

· 문의: 753-8765, 776-2514 새천년복음화사도회

Table with 2 columns: 복음화학교 찬미, 말씀(정초우 회장) / 미사: 이준성 신부
93기 피정 6월20일(토) 오전 10시, 새남터 순교성지성당
복음화학교 6월24일(수) 오전 10시, 6월26일(금) 오후 7시
94기 개강 평동 복음화학교 3층

제주 성 이시들 피정센터(문의: 773-1455)

Table with 2 columns: 제주 피정 메일미사, 삼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
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7월24일-27일, 8월1일-4일, 8월7일-10일, 8월16일-19일
삼위일체회 6월15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피정 강사: 권선호 신부(삼피소회) / 처음오는 분께 탄 목구드림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Table with 2 columns: 열린 기도모임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월요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시30분,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성모송 2000번 때, 곳: 매월 둘째·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젊은이 1일 피정

· 때, 곳: 6월27일(토) 14시-21시, 한남동 수녀원
· 문의: 010-4529-3429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성심교육관 예수성심성월 2박3일 무료피정

· 주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때: 6월19일(금) 오후 6시30분-21일(일) 오후 3시
· 곳: 성심교육관(성심기도원) / 031)262-7600

영성 2일 대피정

· 강사: 김정수 신부(내적 영성 순화치유) / 867-7900
· 때, 곳: 6월20일(토) 9시-21일(일) 17시, 성령쇄신봉사회(주최)-전철 2호선 신림역 버스환승 5535번

청년 주말 침묵피정·'성 이나시오' 식 기도방법

· 대상: 35세이하 미혼 남·녀(주최: 예수수도회)
· 때, 곳: 6월27일(토) 15시-28일(일) 16시, 오류동 수련소(회비: 3만5천원) / 010-5295-1609

분도 명상의 집 묵상 피정

· 준비물: 성경 또는 매일미사책(회비: 9만원)
· 때: 6월26일(금) 16시(접수)-28일(일) 14시(피정 마침) / 051)582-4573, 010-6650-4574

젊은이 피앗 피정

· 주제: 생명의 빵 / 010-8920-9423 정베로니카 수녀
· 때, 곳: 6월27일(토)-28일(일), 성모 영보수녀회 영보피정의 집(주최)-과천

성령쇄신봉사회 42차 지성인성령묵상회

· 때, 곳: 7월31일(금)-8월2일(일) 2박3일, 아른의 집(의왕시) / 7월24일(금)까지 접수
· 회비: 15만원(선착순 60명) / 011-9798-3515

미혼 여성을 위한 주말 개인 피정

· 때, 곳: 매주(토) 오후 5시(일) 오후 5시,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주최) 사당동 본원·강원도 유치리 피정의 집 / 584-6367, 033)432-6367

천안 성거산성지 대피정

· 대상: 성거산성지 순례자 및 후원자 / 041)584-7199
· 강사: 김완식 선교사(토요 특전미사·말씀·안수)
· 때, 곳: 6월20일(토) 13시30분-18시30분, 성거산성지(주최) / 진행·찬양: 주바라기 선교회

예수회 서울 피정

· 주제: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가) / 문의: 718-3896, 7
· 때, 곳: 6월17일(수) 13시30분-17시, 서강대 이나시오관 성당 / 강사: 김형욱 수사(개인 컵 지참)

명동성당 월요 치유 대피정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회비없음)
· 강사: 성직자, 수도자, 일반 교우
·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7시30분, 명동성당 내 별관 / 017-225-6072 명동성당 성령기도회

교육

서울 가리마스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 술 때문에 고통받는 의존자 및 가족을 도움 (http://cacc.or.kr)
· 무료 상담 및 문의: 521-2364, 2577(내방 10시-17시)

Table with 2 columns: 의존자 프로그램 술을 끊고 싶은 분을 위한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
가족 프로그램 가족치료 모임 운영: 매주(목) 오후 2시
자녀 모임 운영: 매주(화) 오후 7시 30분

작은예수사랑음악원 기악 강습

· 곳: 작은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문의: 018-330-3283

Table with 4 columns: 기타: 3개월 18만원, 드럼, 키보드(화성학)
엘렉 베이스 3개월 24만원, 3개월 18만원, 초급(3개월) 18만원
월·수·목(주 1회) 월·수·목(주 1회) 중급(3개월) 24만원
매주(수) 오후 1시 5시 30분 / 웃음치유피정 월·수·목(주 1회)

예비신자 우편 및 사이버 통신교리(문의: 2274-1843, 4)

· 대상: 18세 이상,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반에 함께 할 수 없는 분(주최: 가톨릭 교리통신 교육회)
· 주소: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우: 100-652)

Table with 2 columns: 우편 통신교리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보통우표 20장 동봉 후 등기발송
사이버 통신교리 홈페이지(http://www.cdcc.co.kr) 로그인 후 수강 신청 및 신청요금 입금

자존감 높이기

· 내용: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자존감과 열등감 회복하기(주최: 평화심리상담소)
· 때: 6월19일(금) 오전 10시(8주) / 775-4831, 2

7지구 노원성당 혼인강좌

· 때, 곳: 매달 셋째주(일) 오후 3시-6시, 노원성당 나눔자리(전철 7호선 마들역 5번 출구)
· 회비: 2만원(2인-교재·간식) / 933-9981

다솜 EAC 3급 자격과정

· 통합적 예술테라피 전문가 교육 EAC(Expressive Art Counselor) 과정 / 777-4763 탈리다콤플센터
· 때: 7월4일 8월29일 매주(토) 13시30분-17시30분(8주과정)

가톨릭 목조각 '기초에서 작품까지'

· 내용: 성화, 성구, 성모 마리아, 십자고상 등
·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오후반)·19시-21시30분(아반반), 청담동성당(주최) 지하 목공예교실
· 문의: 3446-1544(http://cafe.naver.com/cmc04)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10)

Table with 2 columns: 성경치유피정 5월28일(목) 9시30분-17시(미라독목요양 '화')를 다스리는 치유피정 3차(선착순 12명)

한국가톨릭 여성연구원 열린강좌/꿈워크숍(성경동무사랑)

Table with 3 columns: 강좌 6월20일(토) 14시30분 / 표은영 연구원 2164-4804
중년기 여성의 자기 리더십
워크숍 7월19일(일) 22일(수) 치유와 성장 '꿈워크숍' 회비: 48만원
7월23일(목) 26일(일) 제레미예 테라피교재 010)537-2018

모집

서울가톨릭간병인회 남·녀간병인 양성 교육 및 모집

· 때, 곳: 6월23일(화)-25일(목) 9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520호(선착순 30명, 환불 안됨) / 928-7185
· 회비: 7만원 / 우리은행 1005-701-131505 (채)전주교

미사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6월19일(금) 11시30분,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신당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월레미사

· 때, 곳: 6월15일(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주최)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성가정임양원 후원회 미사

· 때: 1월18일(일) 오전 11시
· 곳: 성가정임양원 성당 / 문의: 764-4741~3

곤벤티발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 주제: 성모님 안에서 나의 마음 상처 치유(구원도 신부)
· 내용: 미사, 영성강좌 / 793-2070, 010-8820-5560
· 때: 매월 셋째주(월) 10시30분-12시50분
·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안내

성령 성교 수녀회 피정 안내

· 각종 세미나 및 모임, 소그룹 피정, 여성들을 위한 개인 피정기능 / 문의: 741-4895 명륜동 본원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 상담시간: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 상담: 745-1366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 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등급(내용: 노환, 중풍,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방문서비스) / 762-2225 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사회사목부 노인복지위원회 운영)
· 비용: 건강보험보조 85%, 본인부담금 15%(월 11-17만원 인콰-월 80시간 이용 기준)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 신앙 시트콤 '오 마이 갓'

신앙 시트콤 '오 마이 갓' 이 더 깊고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도시 외곽의 평화성당에서 소박한 성격의 신부님과 말괄량이 수녀님, 살림썩어 엉망인 식복사, 바람 잘 날 없는 아줌마 단체 '성모회', 늘 진지한 신학생과 청년 신자들이 펼쳐나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웃음과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월) 오후 10시10분, (수) 오전 10시10분, (금) 새벽 1시 · 오후 4시, (토) 오후 10시30분 (일) 오전 9시

평화방송 라디오

### 강신모 신부의 가톨릭교리

신자와 예비신자, 비신자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가톨릭 교리를 접할 수 있는 주일 교리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교리 선생님들 바로 의정부교구 화전마을본당의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님. 오랫동안 대림특강과 시순특강을 해온 명강사로 방송을 위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원고를 준비합니다.

- 제작: 김은순 PD / 프로그램 구입문의: 2270-2329
- 방송일시: 매주(일) 오전 8시10분



**사도 바오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바오로 사도의 위대한 발자취를 뱃길로 따라 떠나는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를 마련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선 크루즈 성지순례는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가 서린 그리스 아테네, 코린토를 비롯해 터키 이스탄불, 에페소 등과 함께 사도 요한이 묵시록을 쓴 파트모스 섬도 순례합니다. 아울러 지중해(에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미코노스, 로도스, 크레타, 산토리니 등을 여행합니다.

- 일정: 7월 29일~8월 8일(10박11일) / 경비: 398~458만원(4가지)
- 여정: 그리스-터키(아테네-코린토-이스탄불-미코노스-파트모스-에페소-로도스-크레타-산토리니) / 문의: 2266-1591~2(6월26일까지 선착순 마감)
- 특전: 성인 2명 · 어린이(16세 이하) 1명 예약시 어린이 100만원 할인

**평화방송 · 평화신문**  
**여름방학 성지순례**

- 1. 정통 유럽 3개국 순례**  
프랑스(루르드)-스위스-이탈리아  
8박9일, 329만원  
7월17일, 7월31일, 8월14일 출발
- 2. 신 · 구약 성경의 세계 순례**  
이집트-이스라엘 / 7박8일, 239만원  
7월22일, 8월5일, 8월12일 출발
- 3. 성모발현성지 순례**  
벨기에(반뇌)-프랑스(루르드)-스페인-포르투갈(파티마) / 10박11일, 339만원  
7월22일, 8월5일, 8월12일 출발
- 4.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일주 / 6박7일, 209만원  
7월24일, 8월1일, 8월8일 출발

※ 문의: 2266-1591, 2 평화방송 여행사

**가톨릭 남성합창단 '올바우' 창단 30주년 정기연주회**

· 문의: 010-3266-0474 총무, 2671-9800(www.ulbau.or.kr)



1979년 창단한 가톨릭 남성합창단 '올바우' (단장 이상규)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정기연주회를 한다. 한근희 지휘,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6월19일(금) 오후 8시, KBS홀에서 연주한다. 연주회의 주 곡목은 구노의 '성 세실리아 장엄미사곡'이다. 생상스는 이 곡을 듣고 '처음엔 눈이 부셨고 다음엔 매료 당했으며 결국엔 정복당했다'고 감탄했다. 그 외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전석 초대).

**양천성당 연주회 시리즈3 '신현각 · 김윤희 듀오 연주회'**

· 문의: 2647-6413, 4 양천성당



2009년 양천성당이 주관하는 세 번째 연주회 시리즈로서 클라리넷티스트 신현각(프란치스코 사베리오)과 오르가니스트 김윤희(에스텔)의 듀오 연주회가 6월20일(토) 오후 8시, 양천성당 대성전에서 열린다. Heinrich Joseph Barmann의 Adagio, 그리고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테마에 의한 오르간 즉흥연주 등 부드러운 클라리넷의 선율과 파이프오르간의 조화 속에 여러 시대를 망라한 클래식 음악의 레퍼토리를 선사한다(전석 초대).